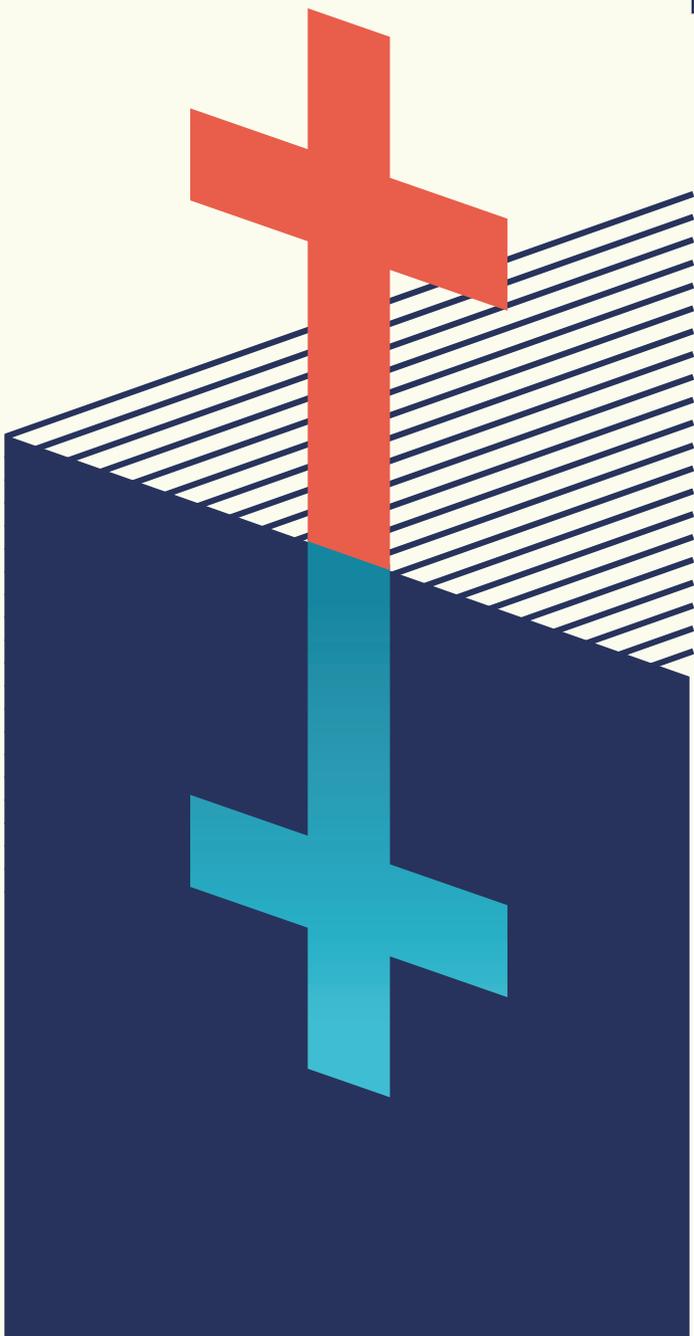


2024년
1월 14일

로마서 강해
갈릴리 공과



1. 학창 시절 기억에 남는 수련회는 언제였나요?
2. 세상의 직업들 가운데 지금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다면?

| 찬양 - 은혜

1.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의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2.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후렴)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은혜 한 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 대표기도

율법은 죄인가? (롬 7:1-13)

로마서 6장과 7장은 예수 믿기 이전과 이후의 차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6장은 죄를 중심으로 풀어갑니다. 예수 믿기 전, 나는 죄가 하라는 대로 다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죄가 내 인생 전체에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죄가 왕노릇하던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으면서 죄로부터 자유하게 됩니다. 내가 죄에 대해 자유할 수 있는 근거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죄의 지배를 받던 옛 자아! 옛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죽었습니다. 둘째, 죄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절대적 지배력을 상실했습니다. 죄의 지배를 받던 나도 죽었고 나를 지배하던 죄의 절대적 지배력도 상실했습니다. 물론 죄는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절대적 지배력만 상실했지, 죄와 사단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까지 치열하게 우리를 공격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지배하지 못할 것은 예수님께서 죄에 대해, 사단에 대해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죄가 왕노릇하는 존재가 아니라 은혜가 왕노릇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죄의 열매인 사망이 아니라 의의 열매인 영생과 거룩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6장에서 말한 예수 믿기 전과 후의 차이입니다.

7장은 예수 믿기 이전과 이후의 차이를 <율법> 중심으로 풀어갑니다. 특히 율법과 나의 관계를 결혼관계, 즉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풀어갑니다. 어제까지 율법은 나의 신랑이었습니다. 나는 율법의 신부였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통하여 율법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이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됩니다. 신랑이 바뀐 것입니다.

여기서 두 가지 질문이 가능합니다.

질문 ①: 어떻게 옛 남편을 정리하고 새 신랑을 맞이할 수 있게 되었는가요?

질문 ②: 옛 신랑이었던 율법은 이제 효력을 상실했으니 버려야 할까요? 다른 말로, 율법은 폐기처분해야 하는 것일까요?

1. 율법으로부터의 자유 - 죽음

로마서 7:1-2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남자와 여자가 결혼합니다. 결혼한 동안에는 부부간의 계약을 지켜야 합니다. 부부의 법은 살아 있을 때만 유효합니다. 둘 중의 어느 하나가 죽으면 부부의 법은 해지됩니다. 죽음은 법적인 구속력에서부터 벗어나게 만드는 결정적인 계기입니다.

부부의 법을 종결 짓는 것이 죽음이라면 그 죽음은 누구의 죽음을 의미하나요? 율법의 죽음인가요? 아니면 나의 죽음인가요?

로마서 7:4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 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했으니> 죽임 당한 건 율법이 아닙니다. 죽임 당한 건 바로 <나>입니다. 율법은 죽을 수 없습니다. 율법은 폐기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율법은 달라지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정신, 하나님의 심정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영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천지가 없어지기까지 일점 일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죽는 것은 율법을 의지하던 내가 죽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의롭게 되려고 몸부림치고, 내 힘으로 하나님께 도달해 보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내가 죽은 것입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주님과 연합할 수 없습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주님을 모실 수 없습니다. 세상을 의지하고! 물질을 의지하고! 세상 가치를 의지하던 내가 죽고 예수 십자가의 능력으로 다시 태어날 때 비로소 나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있습니다.

점검 질문

1. 율법은 왜 폐기될 수도 없고 달라질 수도 없을까요?
2.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 율법이 죄인가요?

신앙이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은 율법이라는 전 남편이 문제가 있어서 바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율법은 죄야! 율법은 나쁜 것이야! 정말 그럴까요?

로마서 7:7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럴 수 없느니라 = 메 게노이트! 단호한 부정어입니다. 율법은 결코 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가 죄를 알지 못하였다고 고백합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율법은 인생과 역사의 기준입니다. 이것을 기준삼을 때 하나님과 선이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선한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

의 죄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의 심정과 뜻을 깨닫게 됩니다. 율법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는 것과 원하지 않는 것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율법을 통하지 않고서는 죄를 알지 못하고 심지어 탐심조차 알지 못했을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참 신비한 일이 일어납니다.

로마서 7:8-11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르매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어려운 내용입니다.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고! 내가 살고! >, <율법이 오면서 죄가 살고 내가 죽고!> 율법이 잘못인가? 아닙니다.

예를 몇 가지 들어 보겠습니다.

첫째, 바리새인들입니다.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처음 그들은 율법이 찾아왔을 때 얼마나 율법을 사랑했는지 모릅니다. 율법 속에 담긴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며 그 율법을 삶의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며 율법 속에 담긴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심정이 빠진 율법 껍질, 율법의 조문에 생명을 걸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마가복음 3장 안식일날 예수님께서 손 마른 자를 치유하십니다. 이를 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난도질해댁니다. 안식일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날입니다. 안식을 누리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는 시간입니다. 생명과 창조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정을 잃어버리니 생명도, 사랑도 사라지고 오직 율법 조문만 남아 사람들을 난도질하는 괴

물로 변해 버린 것입니다.

어찌 바리새인들 뿐이겠습니까? 이단들, 십자군의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이단들을 보십시오! 처음엔 하나님 사랑에 겨워 견딜 수 없이 몸부림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계명대로 살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심정은 오간데 없이 교리만 남고 교주만 남게 되며 이단은 사람을 죽이는 괴물 같은 집단으로 변해 버린 것입니다.

십자군도 그랬습니다. 처음엔 얼마나 성경적이었는지 아십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나라를! 그런데 시간이 흐르며 그리스도의 사랑은 사라지고 십자군의 욕망과 힘만 남게 되면서 살육과 광기로 가득찬 괴물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율법이나 계명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속에 내재된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이라는 정신을 잃어버리니, 그 때 죄가 살아나 사람들을 마구 죽이게 된 것입니다.

또 하나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출입금지라는 팻말입니다. 이 선을 넘으면 안된다는 뜻입니다. 제 고향은 예산군 오가면 양막리입니다. 과수원이 많았어요! 서리하는 사람도 많았어요! 원두막이 있었고! <출입금지>라는 팻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해요! 출입금지라고 써 있는 곳을 동네 형들이 조심스레 넘어가는 거예요! 아하! 출입금지라는 팻말이 있는 곳은 조심스럽게 선을 넘어가라는 뜻이구나!

이게 인간입니다. 하지 말라면 그 때 인간 내면에 있는 죄의 본성이 살아나 그 계명을 타고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청소년 판매금지라는 품목이 있으면 더 잘 팔리는 것 아십니까? 19금 영화는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보는 것 아십니까? 아기들 보고 먹지 말라 하면 더 먹습니다. 부모의 훈육이 문제가 아니라 그 아기 속에 있는 죄의 본성이 계명을 타고 교묘하게 움직이는 것이죠!

율법이 문제가 아닙니다. 인간의 본성 깊은 곳에서는 금지하게 되면 도전하고자 하고 꼭 기어이 그걸 범해보고자 하는 그런 죄 본성이 있습니다. 죄인으로 우리가

태어나지 우리가 무슨 환경 때문에 죄를 짓는 게 아닙니다. 죄의 본성이 우리 가운데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로마서 1장에서 6장까지 한 내용이 이것입니다. 죄는 패배했지만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에서 못박힌 것은 나입니다. 이런 죄의 가능성에 휘둘리는 죄된 본성을 가진 내가 죽은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완전히 죽지 않았어요! 신앙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죄된 본성을 온전히 죽이고 그리스도로 닳아가는 것! 이것이 신앙입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정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생명을 늘 깨닫고 붙잡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율법이 오면 죄가 살아나는 이유는 그 율법 속에 있는 하나님의 정신!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점검 질문

1. 율법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며 인생과 역사의 기준이 되는 선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 율법이 죄인가 라는 오해를 하게 되었나요?

3. 율법은 폐기처분되었는가?

로마서 7:13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 되게 하려 함이라

율법이 죄냐? 선한 것(율법)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대답은 명확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 메 게노이트.

율법은 죄가 아닙니다. 율법은 내게 사망이 될 수 없습니다. 율법은 옳습니다. 율법은 선합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심정이고 정신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옛 남

편이던 율법을 떠나 새 남편인 그리스도와 결합하였는데 그럼 율법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율법의 시대는 저물고 그리스도의 시대가 되었다고 하는데 그럼 율법은 폐기처분해야 할까요?

우리는 율법의 시대에서 은혜의 시대로 옮겨졌습니다. 율법의 시대에는 율법을 억지로 지켰습니다. 하나님의 심정보다는 그 율법을 지키는 내가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은혜의 시대! 그리스도의 시대가 오면서 모든 관점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크지요! 어떻게 신이 나를 위해 죽을 수 있어? 어떻게 전지전능, 영원불변,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질 수 있어? 어떻게 그렇게 우주적인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실 수 있어?

난 이미 죽었어야 했는데 이렇게 살아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거예요! 감당하기 어려운 주님의 뜻이 있었다면 예전엔 피하고 변명하기 정신없었는데, 은혜를 깨닫고 나니 그 어려운 주님의 뜻조차 내게 주어졌다는 것이 견디기 어려운 은혜로 다가오는 거예요! 시키지 않아도 다 하고 싶습니다. 예전엔 십일조 하라! 주일성수 하라! 이 말들이 싫었어요! 십일조? 돈도 모자란데 무슨 십일조야!

그런데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분의 은혜를 깊이 깨달으면서부터 보는 눈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집니다.

시대를 해석하는 눈이 달라집니다. 성경을 보는 눈도 달라집니다. 십일조에 대한 생각도 바뀝니다. 십일조? 아! 주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는데! 내 모든 것은 주님의 것인데! 십일조 정도가 아니라 십의 5조를 바쳐도 아깝지 않게 됩니다. 아니 그 정도가 아니라 내 삶을 전적으로 주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 뿐입니다.

예전엔 주일성수라는 말이 부담되었습니다. 주일성수? 바쁜데 무슨 주일성수! 그랬던 내가 주일성수 뿐 아니라 새벽기도, 수요저녁 예배, 셀 예배까지 다 드립니다. 내 시간도 하나님의 것이요 내 삶의 모든 주권도 하나님의 것인데 그 정도의

시간이야 당연히 하나님께 드려야 하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가득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율법의 시대는 가고 은혜의 시대가 왔지만! 율법이라는 남편과 헤어지고 그리스도라는 새 남편을 맞이했지만! 오히려 율법이 더 사랑스러워지고! 주님께 더 순종하고 싶어지고! 율법을 더 많이 지키고 싶은 마음이 들어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면 하늘을 보아도 감사! 교회 그림자만 밟아도 감사! 율법 한 자 한 자만 보아도 하나님의 심장소리처럼 다가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율법을 귀하게 보셨습니다.

마태복음 5:20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고 성취하기 위해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주님의 날이 오기까지 율법의 일점 일획도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17-18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일점 일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제가 율법을 변명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가 내 삶을 이렇게 바꾸었고 은혜가 내 인생 전체에 우주적인 변화를 가져왔다는 것을 말씀 드리려는 것입니다.

십자가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정으로 살아갑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어떤 뜻조차도 기쁨으로 순종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율법의 한 가지라도! 제도의 한 가지라도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심장으로 다가가 그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자 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은 삶이 달라집니다. 이방인도 내 형제 자매로 다가옵니다. 간음한 여인도 사랑스런 나의 자매일 뿐입니다.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이름 없이 산화하여도 상관없습니다. 배신당해도 모든 것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의 신성을 버리고 죄 많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9:8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세상이 범접할 수 없는 변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랑과 섬김의 삶으로 변한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로 사는 자들입니다. 마음을 크게 가집시다! 하늘을 보며 살아갑시다! 사랑하며 용서하며 살아갑시다! 시대와 역사를 품고 기도합시다! 우리의 삶과 생각이 십자가 은혜로 가득하다면, 세상은 하나님 나라로 변할 것이며 사회도 가정도 변하게 될 것입니다.

점검 질문

1. 은혜의 시대! 그리스도의 시대가 오면서 성도들의 삶은 어떻게 변화되었나요?

적용 질문

1. 신앙생활하며 순종하기 어려웠던 말씀은 무엇이 있었나요?
2. 내가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 가장 크게 자유함을 느낀 적은 언제입니까?

| 공동체 기도

1. 각 부서 수련회에 성령님 기름 부으셔서 은혜 충만하게 하소서.
2.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않게 하시며, 기도는 사라지지 않음을 믿으며 더욱 기도하게 하소서.
3. 1-2월 말씀을 읽고 암송하여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소서.

예수를 나의 구주삼고 (9/8)

(찬송가 288장)

KaMU

R. H. McDaniel/C. H. Gabrie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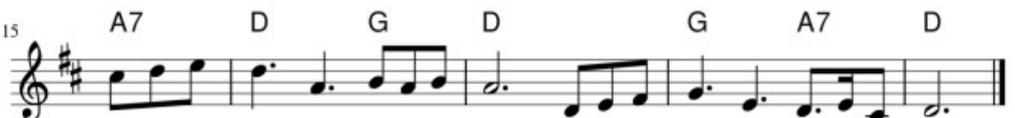
1.예수 를 나 의 구주삼 고 성령과 피 로 써거듭나 니
2.온전 한 주 께 맡긴내 영 사랑의 음 성 을듣는중 에
3.주안 에 기쁨 누림으 로 마음의 풍 랑 이잔잔하 니



이세 상 에 서 내영혼 이 하늘의 영 광 누리도 다
천사들 왕 래 하는것 과 하늘의 영 광 보리로 다
세상과 나 는 간곳없 고 구속한 주 만 보이도 다



이것이 나 의 간증이 요 이것이 나 의 찬송일 세



나사는 동 안 끊임없 이 구주를 찬 송 하리로 다

NOTE.

< 모든 갈릴리 그리스도 공동체는 >

1. 주님 사랑합니다

2. 주님 안에 거하게 하소서
(믿음, 소망, 사랑)

3. 감사하게 하소서

4. 지혜롭게 하소서

5.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